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5월 5일(주일) 제1244호



사진은 지난해 어린이주일 서빙고 유년부 특순.

“사랑, 감사, 존경을 선물하세요”

어린이주일(5일), 어버이주일(12일), 스승의주일(19일) 기념행사
먹거리와 놀거리,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교회학교 선물 증정

5월 가정의 달이다. 곁에 있어서 더욱 소중한 자녀, 부모, 교사에게 사랑, 감사, 존경을 선물하기 정말 좋은 날이 이어진다. 온누리교회에서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감사, 사랑, 존경을 선물하는 풍성한 행사를 준비했다.

차세대사역본부는 어린이주일인 오늘(5일)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풍성한 놀거리를 선물한다. 서빙고 옆 공터(구 골포장)에서 에어바운

스, 바이킹, 미니가차, 회전목마, 에어슬라이드, 대형블록 등의 놀이기구를 설치 및 운영한다.

양재와 도곡교육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간식과 풍선 등을 선물로 나눠준다. 페이스 스티커도 붙여준다. 부천 주차장에서는 감사편지 쓰기, 나눔장터가 진행된다. 남양주 주차장에서는 온가족이 참여하는 제기차기, 줄넘기, 림보 등이 진행된다. 인천 컨벤시아 1층에도 놀이기구를

설치한다. 양지에서는 게임부스를 운영한다.

어린이주일 예배 특순도 다채롭다. 서빙고 2부 예배 유치 1~2부 연합성가대, 3~4부 예배 초등부 뮤지컬 특순팀이 공연을 한다. 양재 1부 예배 키즈뮤지엄, 2부 유치 1부 찬양율동, 3부 유년 1부 찬양율동, 4부 예교 사이닝키즈(성경암송), 도곡교육관 1~2부 꿈땅 연합팀이 특순을 한다. 인천은 2부 예배(11시 20분)를 온가족이 함

께 드린다.

어버이주일인 다음 주일(12일) 예배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다. 서빙고, 양재, 부천, 평택, 강동은 70세 이상, 수원, 대전, 남양주는 65세 이상, 양지는 80세 이상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다. 스승의주일인 5월 19일에는 차세대 교사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한다. 5월 20일(월)에는 부모 초청 맞춤형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가 막 오른다. 가장 소중한 부모님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아주 뜻 깊은 집회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헌혈, 환경 캠페인, 그린스테이션 설치

오늘(5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교회 주차장은 사전에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이촌역과 서빙고 온누리교회, 양재역과 양재 온누리교회를 오가는 셔틀이 운행된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과 더불어 뜻 깊은 캠페인도 실시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Acts29홀에서는 중앙대학교 병원과 함께하는 헌혈 캠페

인이 열린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여하면 된다. 인천만광장에서는 에코백 그리기 등 ‘차세대’를 위한 환경 캠페인(이천만광장)을 한다. 오늘 환경 캠페인에 참가한 차세대들에게는 봉사시간이 부여된다. 원활한 쓰레기 배출과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그린스테이션 오픈’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뒤편에서 진행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당신의 나눔이 선교입니다’

5월 19일 ‘NGO 더멋진세상 정기약정’ 행사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이 오는 5월 19일(주일) ‘당신의 나눔이 선교입니다’를 주제로 정기약정 행사를 실시한다.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이날 NGO 더멋진세상은 서빙고, 양재, 도곡교육관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NGO 더멋진세상의 역사, 주요 사역 등을 설명할 예

정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가난과 질병,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하며 총체적 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더 멋진 마을 조성, 어린이 생명 살리기, 긴급구호, 조기복구, 난민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책 읽어주는 목사

함께하는 기쁨, 아름다운 공동체



〈어느 날 한밤중에〉
글 필 커망스, 그림 제닌 도슨 | 도미술
| 10,000원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Fast food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바늘 보면서... 가슴속에는 모두 다른 마음 각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아무런 말없이 어디로 가는가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

1992년 가수 신해철이 작사, 작곡한 ‘도시

인’이라는 노래의 가사이다. 당시만 해도 이 노래가 극단적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의 현실은 이 노래처럼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모두 외롭게 저마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심지어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가정과 교회에서조차 저마다의 모습으로 외로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모습이 작금의 현실이다.

오늘 소개하는 〈어느 날 한밤중에〉라는 책은 사랑하는 나의 두 아이들에게 읽어주려고 구입한 미취학 아동을 위한 동화책이다.

이 책은 과편화 되고, 홀로 외로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단순하지만 확실한 사회적, 신앙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기린, 코끼리, 하마, 개코 원숭이는 호숫가 근처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먹는 모습이

다르고, 내는 소리가 다르며, 노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의 영역에서 혼자 살아간다. 그것을 편하게 여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위험한 그림자가 다가온다. 그림자는 이들이 살고 있는 호숫가를 초토화시키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자였다. 사자의 위협 앞에서 동물들이 처음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홀로 살아갔던 동물들이 모여 위협에서 벗어날 방법을 논의한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는다. 마침내 그들은 사자의 위협을 이길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낸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로 모아 괴물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동물들의 그림자가 섞이자 괴이한 모양이 되었고, 소리가 섞이자 괴상하게 들렸다. 그 모습과 소리에 놀란 사자는 그 자리에서 달아나고, 동물들이 서로 어울리게 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난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딤후 2:22).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서로의 다른 모습, 다른 습관들이 우

리의 관계를 막는 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벧전 5:8).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서로 돌봐주고 나누고 권면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 책에 등장한 사자를 물리치기 위해 함께했던 동물들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인락함과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이 책을 선물해주시기를 권한다. 이 책을 읽어주면서 함께하는 기쁨과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사랑과 애정이 담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신앙의 뿌리를 바르게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배행삼 목사
(대학부 하늘공동체)



Q4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타로점을 보면 왜 안 되나요?

답: “전인미답의 인생길에서 가장 확실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점괘에 미래를 의존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한번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힌 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은 입시와 진로문제, 장년들은 자녀와 가정문제로 무속인을 찾거나 온라인으로 운세를 보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점은 ‘타로점’이다. 무속인들이 운영하는 점집에 비해 심적으로나 비용 면에서 부담이 적다보니 타로카페를 찾는 젊은 층이 상당하다.

대부분 타로카드가 한 가지 종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타로카드 종류는 클래식, 모던, 화이트계, 라이더계, 토트계 등 수백 가지가 넘는다. 카드의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다보니 타로점 가게에서 사용하는 카드도 제각각이다. 타로점을 보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해

석하기 편한 카드를 사용한다.

타로카드 세트를 ‘덱(Deck)’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덱 안에는 메이저와 마이너 카드가 있다. 메이저는 큰 흐름을, 마이너는 세부적인 것들을 말해준다. 타로점은 각 카드에 그려진 그림들의 위치와 종류를 보고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진다. 하늘의 별자리, 땅을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 열두 마리의 동물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사람의 일생과 연결시켜서 미래를 예언해 보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기준으로 점괘를 보는 사주팔자와 닮은 점이 많다.

인간의 길흉화복이 덱을 구성하는 카드 종류 안에서 결정되고, 카드에 나오는 그림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도 해설자의 주관에 개입된다. 그래서 같은 사람에 대해 누군가는 길조를 말하고, 누군가는 흉조를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점괘와 누구의 말을 신뢰해야 하는 것일까? 복잡다단한 인간의 인생을 제한적인 경우의 수에 의존하여 해석한다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 아닐까?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보려는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이후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말씀해주셨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 신명기 18장 9-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두지 말고 쫓아내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시도가 큰 문제냐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인생에서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 인도하셨다. 성경에서는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오

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심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자녀 삼은 우리를 한 번도 그분의 눈에서 놓친 적이 없으시며,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불신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타로점에 의지하여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청사진을 바라보며 소망을 확신한다. 전인미답의 인생길에서 가장 확실한 답은 하나님께 있다. 인간이 만든 점괘에 미래를 의존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종현 목사
(SNS공동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신앙 위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어떤 싸움이나 전쟁이든지 그 이전에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은 그가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양을 공격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웠던 그때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엘리아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와 겨뤘던 것은 갈멜산에서가 아니라 그가 길르앗과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배웠을 때 이미 바알 숭배자들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은 골고다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위기 앞에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그 순간이 아니라 위기 앞에 먼저 있어야 할 기도에 패배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쓰러지는 것은 고난 앞이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할 때를 놓쳤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이미 쓰러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커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믿음과 기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유혹 이전에 살아있는 기도가 있었다면 어떤 유혹이 온다 해도 결코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유혹에 쓰러진 것은 그가 옥상에 올라갔을 때가 아닙니다. 그 전에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러진 것입니다. 사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하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일지라도 기도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한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이유

국가적 위기 앞에서 기도로 승리한 대표적인 예가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비슷한 시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북쪽에서 왕이 되었

고, 여호사밧은 남쪽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에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치면 6대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모압, 암몬, 세일산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뤄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위기에서 나라를 구합니다. 한 지도자의 믿음, 영성, 기도가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3~4절).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게 한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모압 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한 두려움인 것 같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호사밧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합니다. 여호사밧은 선친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비교적 선정을 행했던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모두 악한 왕이었지만 남왕국에는 간헐적으로 대략 8명의 왕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대해지자 타락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악한 왕과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아합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하는 것을 미워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했을 뿐만 아니라 꾀에 넘어가 함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불필요한 전쟁, 욕심에 근거한 전쟁이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공격했는데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간신히 살아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만나러 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사악한 사람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이 일로 여호와와 진노가 왕께 내렸습니다. 그러나 왕 안에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 이 땅에서 아세라 우상

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대하 19:2-3).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안에는 선한 모습이 있고 또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세라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두었지만 한편으로는 아합과 불필요한 동맹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때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여호사밧은 다시 브엘세바에서부터 예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가운데로 나가서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대하 19:4).

또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재판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공평과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할 것이다’”(대하 19:7,9).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는 것은 공의롭게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올바른 태도였습니다. 그는 아합과의 잘못된 동맹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연합군이 쳐들어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 왔을 때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회개

둘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회개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회개합니다. 그 증거가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까지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군사적,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신앙적인 조치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잘 먹어야 싸울 수 있는데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게 한 것은 회개와 겸손의 표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여호사밧이 다스린 유다는 부강

한 나라였기 때문에 잘 훈련된 군사가 적어도 116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모압 연합군을 그렇게 두려워할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여호사밧은 전 국가적으로 금식까지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성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막강할 지라도 하나님이 치신다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자세

셋째, 참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회복의 길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히시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해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니 너희는 여루엘 광야의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 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 하는 여호와와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대하 20:15~17).

백성들의 마음에 겸손과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잘못을 범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회복의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 결정,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난 전쟁의 순간에도 돌이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심판의 한 가운데서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13면에 계속)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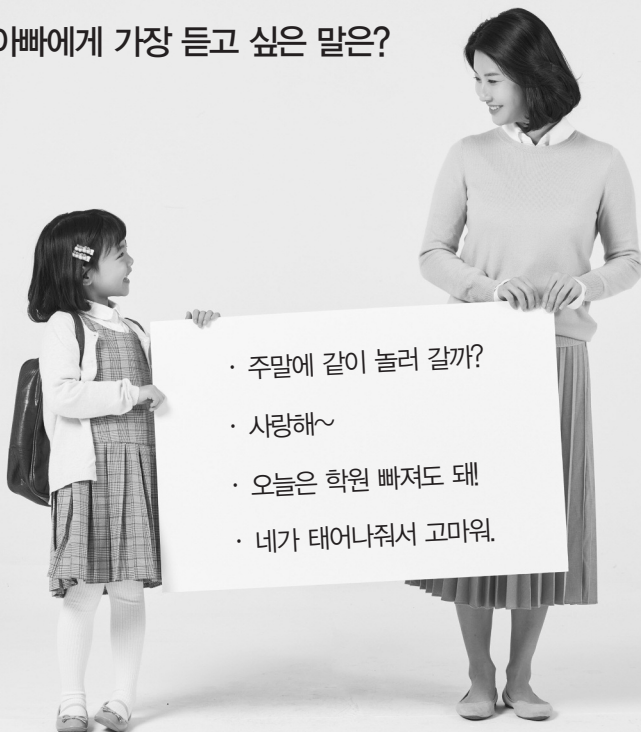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오늘(5일)은 일 년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들은 눈빛을 반짝반짝 빛내며 선물을 기대하고, 부모들은 무슨 선물을 줘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 날이다. 어린이날은 그 자체로 아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물한다. 영국 시인 스윈번은 “어린이가 없는 곳에 천국은 없다”고 했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어린이라는 의미인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을까? 요즘 우리 애들 행복할까?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엄마, 아빠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 주말에 같이 놀러 갈까?
- 사랑해~
- 오늘은 학원 빠져도 돼
- 네가 태어나줘서 고마워.

“요즘 애들은 폭군이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도 게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미래가 암담하다”(소크라테스).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점토판).

어른(기성세대)들 눈에 비친 요즘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EBS에서 방영된 토크쇼 프로그램 ‘부모-고수다’에서 요즘 애들(10대 학생들)에게 “요즘 애들 어때요?”라고 질문했다. 그랬더니 “저희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후배들은 개념이 없다”(18세 여고생), “버릇이 없다”(13세 여학생), “저는 선배들 무서워서 못 까불었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까분다”(13세 남학생)고 답했다. 10대 학생들이 내놓은 답을 뒤라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요즘 애들도 이미 알 거 다 알고, 자신들만의 세계가 있다.

‘인싸 용어’를 아시나요?

‘인싸 용어’를 모르면 요즘 애들과 대화하기 참으로 어렵다. 대화가 안 될 정도다. 인싸는 ‘인사이터’의 줄임말이다. 각종 행사나 모

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인싸의 반대말은 ‘아싸’(아웃사이더)이다. 요즘 애들은 일상이나 SNS에서 인싸 용어로 대화한다.

“넌 이제 저랑 평반해요.”, “유희는 임구했음.”, “댕댕이 커엽다.”, “이 노래 펑곡인데? 렐루 좋다.”, “아침부터 롬곡 흘렸어.”

이 말이 이해된다면 당신은 초등학교생이거나 해인싸(인싸 중의 인싸)이다. 평반은 ‘평생 반 말 모드’, 유희는 ‘유티브’, 임구는 ‘이미 구독했다’, 댕댕이는 ‘멍멍이’, 커엽다는 ‘귀엽다’, 펑곡은 ‘멍곡’, 렐루는 ‘real루(리얼리)’라는 뜻이다. 롬곡은 ‘눈물’을 의미한다. 인싸 용어는 한글과 영어의 요묘한 조합, 줄임말, 한글의 변형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종류가 무궁무진하다.

한 부모는 자녀들이 쓰는 말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서 고민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딸이 시험 못 봐서 속상하다며 ‘미자’ 아니었으면 술 마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딸 친구 이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자는 ‘미성년자’를 뜻하는 말이더라고요.”

요즘 애들의 장래희망

4세대 LTE를 넘어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앞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달라졌고 지금도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요즘 애들의 장래희망도 옛날과 참 많이 달라졌다. 선생님, 의사, 판사, 과학자 등은 30년 전 10대들의 대표적인 장래희망이었다. 요즘 애들의 장래희망은 무엇일까?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초·중고 1,200개교 학생 27,2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초·중·고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유튜버’와 ‘뷰티 디자이너’가 10대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등장했다. 초·중학생 장래희망 부동의 1위였던 교사를 제치고 운동선수가 그 자리를 탈환했다. 유튜버는 초·중학생의 장래희망 5위를 차지했다.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운 장래희망이다. ‘뷰티 디자이너’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중학생의 희망직업 6위, 고·중학생 희망직업 4위가 뷰티 디자이너다.

이 시대의 안타까운 상황이 묻어나는 장래희망도 있다. 공무원, 건물주, 정규직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2015년 JTBC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서 각국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미국 어린이들은 스파이더맨, 이탈리아 남자아이들은 축구선수, 해적, 여자아이들은 수다쟁이 등을 장래희망으로 꼽았는데 한국 어린이들은 교사, 운동선수, 연예인 심지어 ‘정규직’이라고 대답해서 출연자들이 안타까움과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새벽 2시 30분 취침, 아침 7시 기상, 오전 8시~오후 3시 학교 수업, 오후 3시~6시 영어 학원, 오후 6시~10시 수학 학원, 오후 10시~새벽 2시 30분 과제, 한자, 중국어 공부...

이 일과와 주인공은 고·중·고생도, 취업준비생도, 고3 수험생도 아니다. 서울 강남의 초·중·고 6학년 학생의 일과표다. 생각만 해도 갑갑하고 숨이 막힌다.

요즘 초·중·고 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보다 동호회나 조기 축구하는 아저씨들이 더 자주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자마자 각종 학원으로 직행하기 때문이다. 지역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

이상 학원을 다닌다. 입시 위주, 선행 학습, 사교육 열풍 등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교육이 아이들을 아이답지 못하게 키우고 있다. 오죽하면 프랑스 신문 <르몽드>가 한국 아이들을 일컬어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아이들”이라고 했을 정도다.

그 때문일까?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다. ‘2016년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들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22개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어린이들은 2009년 첫 조사 이후 2015년을 제외하고 계속 행복도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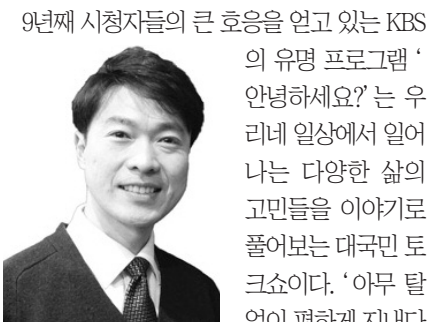
한 설문조사에서 초·중·고 6학년 100명에게 ‘여러분은 행복한가요?’라고 물었더니 아이들 38%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 다음은 비교적 행복하다(28%), 매우 행복하다(25%), 행복하지 않은 편(6%), 불행하다(3%) 순이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과반(53%) 밖에 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왜 우리 아이들은 행복이 뭔지, 불행이 뭔지도 모른다고 답했을까? 아무도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너무나 쉽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부모가 같이 있어주면 된다.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공부하라”고 잔소리 하지 않으면 된다. 실제로 2017년 키즈현대 설문조사(초·중·고 100명 대상)에 따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주말에 같이 놀러 갈까?”, 2위 “사랑해”, 3위 “오늘 학원 빠져도 돼”였다. 소수 의견으로는 “네가 태어나줘서 고마워”, “괜찮아” 등의 말을 듣고 싶어 했다. 부모한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누구네 집 애는 이렇는데...”, “공부나 해”,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니?”, “네가 뭘 안다고”였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용돈도 스마트폰도 아니다.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과 따뜻한 말 한마디다. 오늘날이라도 공부하라는 잔소리는 접어두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 인싸 용어로 대화하면 세대 간 간극도 좁아질 것이다.

전문가 기고

“우리 아이들과 학교는 안녕하세요?”



박상학 목사
(온누리교회 협동목사, 새롬중학교 교사)

9년째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KBS의 유명 프로그램 ‘안녕하세요?’는 우리네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고민들을 이야기로 풀어보는 대국민 토크쇼이다. ‘아무 탈 없이 편하게 지내다’라는 뜻인 ‘안녕(安寧)’은 우리의 대표적인 인사말임과 동시에 살면서

가장 갈망하게 되는 몸과 마음의 상태일 것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자녀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인 학교가 아무 탈 없이 안녕한지 잠깐 생각해 보고 싶다.

12년 동안의 동상이몽(同床異夢)

얼마 전 한 신문에 실린 인천 여고생의 글이 참 충격적이다.

“8살이 되던 해에 초대장을 받아 19살까지 매일 정모(정기모임)를 한다. 11월에 치러지는 한 번의 시험으로 마침내 이 정모는 끝난다. 왜 난 바보같이 그 정모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초중고 12년 학교생활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학생의 자조가 어느 정도 납득되는 이유는 우리 교육 현상이 가히 정상은 아니라는 것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는 한 교육 잡지에 실린 중학교 여교사의 글이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얼굴은 화끈거렸으며 입술에 경련이 이는 것 같았다. 눈치 보며 조용히 지켜보는 다른 아이들 때문이라도 더 이상 화를 낼 순 없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인 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앉아있는데 심장이 발딱발딱 얼굴에서 뛰는 것 같았다. 할 수만 있다면 뛰쳐나가고 싶었다. ‘야! 이 왕싸가지야!’ 이렇게 소리라도 지르면 속이라도 좀 풀릴까. 꼭꼭 누르고 앉아있으려니 미칠 것만 같았다. 뜨거운 피가 눈물로 솟구칠 것만 같았던 11월의 어느 날, 우리 반 수업시간.”

12년 동안 매일같이 정모를 나갔지만 왜 다녀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한 학생들, 그들과 하루 종일 감정싸움으로 소진된 선생님들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상이몽의 학교는 정말 안녕한가?

마음이 뒤틀리고 있는 아이들

‘이생망’, ‘대박자’, ‘자해러’... 최근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다. ‘이번 생은 망했어’,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 ‘자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삶을 자조하는 태도는 말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작년 말에는 자해를 SNS에



“참다운 교육, 행복한 학교는 무엇일까?
의도와 목적으로 개입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 교사와 학생 사이의 정서적 교류다.
아이들 마음고생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인증하는 유행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가 작년 진행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생 중에서 자해를 경험한 학생이 최소 7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1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자해 동영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팔목이나 신체 일부분을 칼로 그어 피가 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상을 게재하는 것이다. ‘피 예쁘다’, ‘자해, 피젤리’, ‘아침에 약한 자해하고 피 닦음’ 등의 자해 관련 동영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 자해 전파, 자해 확산을 막아 달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과잉학습과 약해진 인간관계로 아이들의 마음이 뒤틀리고 있다. 최근 자해 유행은 아이들의 병든 마음이 확연히 드러난 사회현상이다. 아이들은 마음이 고통스럽다 보니 이를 회피할 방법을 찾아 자해까지 하게 된다. 고통스러운 순간을 잊고자 하는 심리로 손목을 그었는데 그조차 아무도 몰라주면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서 온라인에 올리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 친척, 동네 어른처럼 자신의 아픔을 나눠줄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야기할 사람 자체가 줄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형제가 없거나 한 명인 경우가 많고, 부모님은 바빠 고민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다. 이

야기 나눌 사람이라곤 친구밖에 없는데, 그 친구들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들의 좌절감은 더 커진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을 풀어보려 자해하는 아이들이 나타난다. 아이들의 마음고생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다.

“참다운 교육, 행복한 학교는 무엇일까?”

의문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알게 된 것은 교회에서도 세상의 변화를 꿈꾼다고 소리치지만 내 자식의 문제에서만은 세상 탓을 하는 우리의 알팍한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이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아이에게 개입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 교사와 학생의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 교류가 핵심이어야 한다. 배움의 과정이 행복하고 진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이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시장논리가 개입되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온갖 ‘카더라 통신’이 난무한다. 그런 논리 속에서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주어야 하는 칭찬도 계산적인 조종으로 뒤섞여버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독서마저도 사교육 시장으로 내뱉는다.

임시라는 견고한 성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강력한 파워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모들은 초조해진다. 아이들이 가진 본래의 가치는 일단 뒤로 눌러 앉히고, 문제풀이 능력에 집착하는 민낯을 노출한다. 아이들에게 숨겨

진 가치와 가능성을 모두 외면해버린 채 공부 못하면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고, 그러니 공부해야 한다는 설득과 협박이 넘쳐나는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이 부모와 교사 몫이다. 체념하기보다 세상과 싸우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도록 더 열심히 길을 터 주어야 한다.

회개(悔改)와 회구(希求)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지 않았던 것을 회개(悔改)해야 한다. 잘못된 가치관을 자녀교육에 투영하면서 신앙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우리의 헛된 바람을 회개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역류하기는커녕 세상을 향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 것을 회개해야 한다. 학벌주의 입시 시스템과 과도한 경쟁의 교육 광풍 속에서 전혀 구별됨 없이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 신앙 우선의 가치관을 심어주려는 거룩한 움직임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아이들인데 저마다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과도한 무한경쟁 고리 안에서 허우적거렸던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

학교 폭력과 왕따, 욕설로 얼룩진 교실 가운데 갈등해결 교육이 이루어지고, 참된 우정이 꽃피기를 회구(希求)해야 한다.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개인의 안정적 삶에 매몰되지 않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의에 대한 갈망, 세상을 품은 담대한 비전을 꿈꾸도록 회구해야 한다. 교육 소외계층이 겪는 모든 불공정이 해결되어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북자가정, 장애 아동 등이 상황에 맞는 돌봄과 교육 지원을 받게 되기를 회구해야 한다. 인권의 가면을 쓰고 들어온 헛된 사상과 주의(主義, -ism)와 영적전쟁을 선포하기를 회구해야 한다. 출신학교 차별, 대학 간 서열화, 직업 간 임금 격차가 사라지도록 획일적 경쟁구조가 개혁되기를 회구해야 한다. 교실에서는 사제(師弟) 간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의 기쁨이 회복되고, 평화로운 관계가 구축되기를 회구해야 한다. 불필요한 감독과 평가, 행사와 공문 등 비본질이 교육의 본질을 압도하는 관료화된 학교 틀이 개혁되도록 회구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들을 수립하고, 옹골게 추진하기를 회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녕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발길을 멈추고 함께 슬퍼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루살렘아, 누가 네게 인정을 베풀겠느냐?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누가 네 안녕을 묻기 위해 발길을 멈추겠느냐?”(렘 15:5).

이 나라와 민족의 다음세대, 그리고 그들의 배움 터전 학교에게 인사를 건네 보자.

“우리 아이들, 안녕하세요? 학교, 안녕하세요?”

소년범(少年犯)들의 가장 좋은 친구

남양주 새사모사역팀과 신촌정보통신학교 재학생들

남양주 온누리교회 '새벽이슬 같은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새사모사역팀)'이 섬기고 있는 신촌정보통신학교는 비행 청소년들의 재범을 막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청소년 교정기관이다. 신촌정보통신학교 재학생들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소년범(少年犯)들이다. 그들은 왜 그 어린 나이에 범법자가 됐을까?

"관심 받고 싶어서 사고를 쳤어요."

신촌정보통신학교 재학생 김성경 학생(가명, 17세)의 고백이다. 그의 말대로 그들은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서 사회와 가정에 큰 불만을 품고 있다. 그 불만이 쌓이고 쌓여 청소년 범죄로 이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줄 진짜 친구가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바로 그 사랑과 관심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역할을 남양주 새사모사역팀이 하고 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남양주 새사모사역팀은 신촌정보통신학교 재학생들에게 세상 누구보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신촌정보통신학교 재학생들을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다. 떡 벌어진 어깨, 험상궂은 얼굴, 불친절한 말투, 휘황찬란한 문신까지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진다. 외모만 보면 흉폭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은데 정작 신촌정보통신학교 재학생들이 저지른 범죄는 경미하다. 경미한 범죄라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처벌받고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들이 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가사소년전문법관 심재광 판사(서울가정법원)는 지난 3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소년에게 보호처분(사회방위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법에 대해 가하는 보안처분)을 내리기 위해 조사된 보고서를 보면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 70% 이상이 결손가정이거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정의 건강해야 청소년들이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가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면 누군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교회는 누가 제안하지 않아도 그 일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우리 사회에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편견 없이 사랑해주고 섬겨줄 공동체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무조건 질타하고 냉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질타와 냉대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결코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는 좋은 친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여기 그 좋은 친구들이 있다. 바로 남양주 새사모사역팀 말이다. 새사모사역팀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신촌정보통신학교 재학생들을 섬기고 있다. 당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있던 청소년 사역을 인계받아 시작했다. 사역 초기에는 신촌정보통신학교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었다. 삶의 이유와 소망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새사모사역팀은 소모임, 성경 퀴즈, 여름성경학교 등 청소년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손수 만들어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신촌정보통신학교를 찾아가 섬기고 있다.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시작되는 소모임에서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세상 누구보다 좋은 친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청소년들을 하나씩 만나는 감동적인 자리로 인도하는 것도 빼놓고 있지 않다. 매년 8월 실시하는 여름성경학교가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신촌정보통신학교에서 소모임, 성경퀴즈, 여름성경학교 등을 실시하면서 청소년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사역 초창기에는 예배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했었다. 찬양을 부를 때면 일부러 엇박자로 박수를 치거나 대놓고 엎어져 자는 일이 다반사였다. 남상현 팀장(새사모사역팀)은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끔찍하다. 실의에 빠질 정도였다. 그렇다고 그 가여운 청소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기도하면서 청소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고심 끝에 지루하고 따분한 예배 방식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날 이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찬양부터 밝고 경쾌한 곡들로 바꿨다. 청소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경퀴즈도 준비하고 선물도 나눠줬다. 확 달라진 예배 방식에 청소년들이 조금씩 반응을 보였다. 예배에 가장 관심이 없던 박소망 학생(가명, 18세)조차 어느 순간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을 따라 불렀다. 박소망 학생은 예배 때마다 큰 소리로 떠들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남상현 팀장은 "박소망 학생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간증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소망이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촌정보통신학교를 퇴원(출소)한 뒤에도 교회에 꼭 나갈 거라고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소모임 효과도 탁월하다. 새사모사역팀원 한 명과 청소년 4명과 한 그룹이 되어서 말씀을 묵상한다. 소모임은 청소년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새사모사역팀으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아낌없이 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신촌정보통신학교 재학생들이 바로 이 소모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변화됐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눈물어린 고백을 한 청소년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찬양 학생(가

명, 19세)도 그 주인공 중 한 명이다. 이찬양 학생은 반향이 몹시 심했다. 예배드릴 때마다 옆드려 자는 것은 기본이고, 어른들 앞에서조차 무례하고 버릇없는 행동을 일삼았다. 그런데 이찬양 학생이 소모임에 참가하면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났다. 그 변화의 비결은 조은혜 집사(새사모사역팀)가 보여준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이었다.

"처음에는 찬양이의 버릇없는 행동과 특특 내뿜는 거친 말 때문에 위축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찬양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검정고시 준비는 잘 되가니?' 등 찬양이의 일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질문했어요.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어느 순간 찬양이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소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지금은 고민이 있거나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

남양주 온누리교회 새사모사역팀은 매주 모여 기도도 사역을 준비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은혜다. 새사모사역팀의 기도제목은 단 한 가지다. 신촌정보통신학교 재학생들이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삶의 소망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요즘 새사모사역팀은 8월 열리는 신촌정보통신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이번 신촌정보통신학교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신나는 찬양과 말씀공부, 청소년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영화 상영, 세례식 등 청소년들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득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촌정보통신학교 여름성경학교에서 청소년 81명이 세례를 받았다. 신촌정보통신학교 청소년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남상현 팀장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후원: 김운정 1002-357-886232(우리은행)
문의: 010-9471-5258

순맛춤전도, 이렇게 하면 꽃이 핀다!

5월 셋째 주부터 순별로 순맛춤전도집회 실시

5월 셋째 주부터 맛춤전도의 꽃 ‘순맛춤전도집회’가 시작된다. 지금 순마다 순맛춤전도집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모른다. 이번에는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소망을 품고 구슬땀 흘리고 있다. 순마다 순맛춤전도집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있다. 순맛춤전도집회만큼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순맛춤전도집회 이렇게 하면 꽃이 핀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순맛춤전도집회는 순원들의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지인 등을 순예배에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방법이다. 전도대상자와 함께 순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즐겁게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다.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에서는 순장들에게 순맛춤전도집회 매뉴얼을 제공했다. 순맛춤전도집회 매뉴얼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여기에서 순맛춤전도집회를 실시해본 선배들의 실제적인 노하우를 더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 지난해 순맛춤전도집회를 실시했던 양준홍 집사(서대문공동체), 하상우 집사(강남D공동체), 구자엽 집사(고양은평공동체)에게 그 방법을 물었다.

전도대상자의 특성부터 파악하라!

우선 전도대상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순맛춤전도집회를 준비해도 순맛춤전도집회 프로그램과 전도대상자의 특성(성격, 취미, 교회에 대한 인식 등)이 맞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준홍 집사는 전도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도대상자의 나이, 성격, 직업, 교회에 대한 인식 정도만 파악해도 순맛춤전도집회를 준비하고 실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도대상자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 장소 선정부터 이벤트 내용까지 맞춤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공적인 순맛춤전도집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도대상자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준홍 집사네 순은 순맛춤전도집회를 짬짬 방에서 했다. 전도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전도대상자 대부분이 예배에 오는 것을 어색하거나 부담감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드리러 오라는 말 대신 ‘목욕이나 하러 오세요!’라고 말씀 드렸어요. 그 때 전도대상자가 미국에서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부부였는데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전도도 할 겸 짬짬방에서 순맛춤전도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하상우 집사는 출산한지 얼마 안 된 전도대상자의 상황에 맞춰서 순맛춤전도집회를 실시했다.

“전도대상자였던 자매가 출산한지 얼마 지



딸기밭에서 열린 순맛춤전도집회.

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집에서만 머무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지를 생각하면서 그 자매만을 위한 공간과 음식을 주문하고,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 자매가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이는 순모가 대신 봐주었지요.”

그 다음은 특화된 예배 프로그램

전도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예배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본 사람들과 함께 난생처음 예배드리는 일이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다. 따라서 전도대상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화된 예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상우 집사는 기존 순예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저는 순맛춤전도집회가 하나님과 전도대상자가 소개팅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순맛춤전도집회 장소가 곧 소개팅 장소이고, 순원들이 주선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 주선자가 너무 부담스럽게 행동한다면 그 소개팅은 100%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순맛춤전도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익숙한 예배 형식이나 기도의 틀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대상자가 하나님을 천천히 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양준홍 집사네 순은 나눔 시간을 적극 활용했더니 전도대상자들이 부담을 훨씬 덜 느꼈

다고 한다.

“저희 순은 나눔 시간을 오래 가졌어요.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 달라진 모습을 나눴어요. 전도대상자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최대한 무겁지 않게 이야기 하고, 시간도 제한했어요. 한 사람당 3분 정도 감사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했어요. 그랬더니 전도대상자도 예수님 만나느 기쁨을 경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자엽 집사는 전도대상자들에게 순모임만의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호칭을 순장님, 집사님 등으로 부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불렀어요.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처음인 전도대상자들이 최대한 어색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무척이나 애썼어요. 순모임에 오면 세상의 모임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노력했어요.”

작은 이벤트가 순맛춤전도집회를 축제로

순맛춤전도집회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고 싶다면 전도대상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도 매우 좋다. 하상우 집사네 순은 전도대상자에게 축하케이크와 선물을 전달하며 축하하는 이벤트를 했다.

“전도대상자들에게 정말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축하케이크와 선물, 축복기도와 축복송을 하면서 서로를 축복했어요.

다과도 나누고, 기념촬영도 했어요. 정말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양준홍 집사네 순도 이벤트를 실시했다. 순원 전체가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전도대상자와 순원들 모두의 축제가 되었다.

“순원들 모두가 역할을 나눠서 순맛춤전도집회 장소를 장식하고, 전도대상자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케이크 이벤트를 했어요. 모두 함께 준비한 만큼 전도대상자뿐만 아니라 순원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축제가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순맛춤전도집회를 준비하면서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기도다. 양준홍 집사네 순은 순맛춤전도집회 3개월 전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순맛춤전도집회 3개월 전부터 순원들과 함께 전도대상자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하상우 집사네 순은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전도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전도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했어요. 새 생명 탄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전도대상자를 기다리며 매주 순모임 때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어요.”

기도로 준비한 순맛춤전도집회는 은혜 그 자체였다. 구자엽 집사네 순은 기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순맛춤전도집회에 전도대상자가 오지 않았는데도 열매를 맺었다.

“전도대상자가 순원의 남편이셨는데 순맛춤전도집회 당일엔 사정이 생겨 못 오셨어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순원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결국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전도대상자였던 분의 집에서 순예배를 할 때 차를 대접해주시더니 어느 순간 순예배에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1년 후에는 이웃리치까지 함께 다녀왔어요. 기도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순맛춤전도집회 일정: 2019년 5월 셋째 주, 넷째 주
자료카페: <http://cafe.naver.com/onnurigospel>
문의: 온누리전도본부 02-3215-3214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가정예배를 생활화하자!

믿음, 기도, 그리고 충성

가정예배 양식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488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같이
기도		말은 이
성경봉독	창세기 24:10~14	다같이
설교	‘믿음, 기도, 그리고 충성’	말은 이
말씀과 일상 나누기		다같이
기도제목 나눔과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들어가는 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 엘리에셀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자신의 친척 중에서 아내를 택할 것을 약속하게 합니다.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기에 중요한 일을 맡긴 것일까요?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엘리에셀이 메소보다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하여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기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나홀의 성에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부탁대로 이삭의 아내를 찾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어떤 일, 또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상식에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역시 나이가 많고,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많은 인생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 곧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 역사의 끈을 이어가는 중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충실히 감당해 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엘리에셀은 나홀의 성까지 대략 800km의 거리를 여행하였습니다. 피곤에 지친 늙은 종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할 일은 쉴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기도부터 했습니다. 살아계시고 내 옆에 계셔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을 확인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가족이 기도로 삶을 꾸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한 이후 이삭의 신부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일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리브가의 가족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33절에서 엘리에셀은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대접받지만 자신이 온 목적을 말할 때까지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부름 받은 일에만 전념하는 진실로 충성된 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맡은 일에만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충성된 종입니다. 54절과 56절을 보면 이삭의 아

내가 결정되고, 리브가의 가족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려 합니다. 그는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힘, 관계 등을 아껴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큰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종의 순종과 충성으로 가나안 이방민족의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친척 가운에서 여인을 택하게 되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앙적 순결함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가는 말

아브라함의 종은 비록 늙고 대단한 위치가 아닌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4장 전부를 할애하셔서 그 종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며, 하나님께 충성된 종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매순간 충성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높이 평가하시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김관수 목사
(경기A공동체)

가정예배 상담소

〈생명의 삶〉 장덕은 편집장이 제안하는



장덕은 편집장
(생명의 삶)

가족 QT나눔은 온 가족이 매일 같은 성경 말씀으로 QT하고, 묵상하고, 적용한 내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일반 소그룹 QT나눔이 수평적인 모임이라면, 가족 QT나눔은 수직적인(세대 간)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QT나눔을 매일 하는 것이 힘들다면 한 주에 두세 번 해도 좋습니다.

만약 일주일에 한 번 QT나눔을 한다면 ‘QT

나눔식 가정예배’를 권합니다. 가정예배는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평소 QT나눔이 훈련된 가정은 찬양과 기도만 더해지면 자연스럽게 QT나눔식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QT나눔식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생명의 삶〉에 수록되어 있는 ‘주일 가족 QT 나눔’, 〈새벽나라〉의 ‘Sharing QT’, 〈예수님이좋아요〉의 ‘주일 팬QT’ 같은 지면을 활용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들 코너에서는 본문과 함께 연령에 맞는 QT나눔식 가정예배 방법, 해설지, 추가 활동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T나눔식 가정예배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QT나눔식 가정예배 어떠세요?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에 불과한 교회 교육에만 의존해서는 다음세대들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교회학교 위기 진단 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QT나눔식 가정예배는 부모자녀 간 신앙 성장과 발달, 신앙 전수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QT나눔이 곧 신앙교육의 장(場)이 되기 때문입니다. QT나눔식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는 자녀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자녀의 생활까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배울 뿐만 아니라 가정의 대소사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

니다.

QT나눔식 가정예배가 정착되면 자녀들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영적 발달 단계를 이해하게 되고,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줄이게 됩니다. 부모자녀 간 대화 부족 및 소통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시간을 구별해야 하고, 인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QT나눔식 가정예배는 인도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인도자의 일방적 설교가 아니라 모두 나눔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두란노서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QT지가 같은 본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QT나눔식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여성들이여 오라!

치유와 회복, 소망과 기쁨 선물하는 '큐티나눔방'

여성사역 큐티나눔방은 여성들을 위한 주중 큐티모임이다. 큐티 월간지 <생명의 삶>(두란노), 성경 등을 활용해서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방원들과 함께 나눈다. 현재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소그룹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에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큐티나눔방이 12개 개설되어 있다. 각 큐티나눔방마다 성도 6~7명이 참여하고 있다. 큐티나눔방은 단순한 큐티모임을 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말씀에 목말라 있는 여성들이 큐티나눔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 소망과 기쁨을 선물 받고 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많은 여성 성도들이 여성사역 큐티나눔방을 통해서 가정과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살다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도 있고, 억울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그럴 때면 눈물을 펄펄 쏟아내기도 하고 한숨을 길게 내쉬기도 한다. 결국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간다.”

이 놀라운 일이 온누리교회 여성사역 큐티나눔방에서 벌어지고 있다. 온누리교회 여성사역 큐티나눔방은 각각 시간, 공간, 구성원이 다른데 경험하는 은혜는 같다.

큐티나눔방의 역사와 유익

여성사역 큐티나눔방은 2000년에 시작됐다. 여성 성도들이 동부이촌동 인근에 여러 개의 큐티모임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모임을 인도할 일꾼이 부족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사역 본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여성사역 본부가 그 일을 도맡아 했다. 큐티모임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잘 훈련된 리더를 보내줬다. 큐티나눔방을 추가적으로 조직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큐티나눔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후 동부이촌동에만 있던 큐티나눔방이 각 캠퍼스별로 활성화됐다. 그때 개설된 큐티나눔방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서 운영되고 있는 큐티나눔방은 사랑, 헤세드, 행복한, 온유, 축복, 소망, 매일새롭게,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헵시바, 믿음, 로렐나무 등 12개가 있다.

큐티나눔방에서는 나눔방장 1명과 나눔방원 6~7명이 매주 정해진 시간에 모여 큐티 월간지 <생명의 삶>(두란노) 본문, 성경 등을 읽고 나눈다.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도 고백한다.

김은하 전도사(서빙고 여성사역)는 큐티나눔방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큐티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영적 양식이지만 꾸준히 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사와 육아로 전쟁 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큐티나눔방은 말씀에 목말라 있는 여성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부터 신앙의 회복까지

지난 4월 30일 큐티나눔방에서 만난 이애연 집사(양천공동체)가 큐티나눔방에 참여하면서 받은 은혜를 고백했다.

“여성들을 위한 큐티모임이 정말 많이 필요

해요. 왜냐하면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여성으로서 받은 아픔을 순이나 공동체에서 나누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성사역 큐티나눔방에서는 여성들이 그동안 쉽게 꺼내지 못했던 상처를 마음 편하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나눔방원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아낌없이 받고 있습니다. 나눔방원들과 큐티를 나누면서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게 됐고, 서로를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돌도 없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이애연 집사가 말한 것처럼 여성들에게 큐티나눔방은 꼭 필요한 것 같다. 다른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큐티나눔방에 참여하면서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된 여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가정의 회복부터 신앙의 회복까지 경험했다”고 간증하는 여성들이 한둘이 아니다.

장미숙 성도(광명공동체)도 그 주인공 중 한 명이다. 장미숙 성도는 2015년부터 큐티나눔방에 참석했다. 당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큰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때 그 어려움을 큐티나눔방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

“당시 저는 신앙적 의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니던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와 마찰이 점점 커졌어요. 그저 위로 받고 싶어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큐티나눔방을 방문했어요. 그때 나눔방장님께서 저에게 교회의 질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셨어요. 그날 이후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오해와 갈등들이 풀리더라고요.”

장미숙 성도가 큐티나눔방에서 받은 은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실마리를 찾았다.

“큐티나눔방에 참여하면서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늘 남편에게 제 말이 옳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요하곤 했는데 나눔방원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을 존

중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했더니 부부관계가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장미숙 성도의 고백처럼 큐티나눔방은 신앙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회복시킨다. 박미정 성도는 자녀와의 관계까지 회복했다. 박미정 성도(무궁공동체)는 큐티나눔방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자녀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최고의 교육방식이라는 것도 배웠다.

“부모로서 자녀를 끝까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큐티를 하면 가능해집니다. 큐티를 하다보면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녀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저는 조급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또한 큐티나눔방에서 나는 묵상은 자녀교육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아이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든요. 자녀교육이나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은 큐티나눔방에 오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교육법을 배울 수 있거든요.”

심은진 성도(경기A공동체)는 큐티나눔방에 참여하면서 큐티를 꾸준히 하게 됐고, 잘못된 생활습관도 바로잡았다.

“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큐티를 꾸준히 하지 않았어요. 큐티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큐티스쿨을 수료하고, 큐티나눔방에 참여하면서 큐티의 필요성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활습관도 바로잡았어요. 아침에 눈뜨자마자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웹툰을 보곤 했는데 지금은 말씀부터 읽습니다.”

김은하 전도사는 큐티나눔방이 삶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큐티를 하고 싶는데 꾸준히 하는 게 어렵거나 치유와 회복, 소망과 기쁨에 목말라 하는 여성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큐티나눔방에 오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대로 살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문의: 02-3215-3677

여성사역 서빙고 큐티나눔방 소개

요일	시간	이름	나눔방장	장소
화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30분	사랑	고경희	신관 203호
화	오후 1시~오후 3시	헤세드	이애연	신관 203호
수	오후 1시~오후 3시	행복한	맹윤덕	꿈이룸홀
수	오후 1시~오후 3시	온유	김종순	신관 101호
수	오후 1시~오후 3시	축복	윤숙영	신관 302호
수	오후 1시~오후 3시	소망	신선호	신관 101호
수	오후 12시~오후 2시	매일새롭게	김은하	신관 203호
목	오후 1시~오후 3시	임마누엘	박선경	신관 203호
목	오후 1시~오후 3시	여호와 이레	신화미	드림홀
금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30분	헵시바	경현	신관 203호
금	오후 1시~오후 3시	믿음	박명희	신관 203호
금	오전 10시~오후 12시	로렐나무	배미령	홍보관

요셉공동체의 ‘아주 특별한 주말’

힘을 얻는 토요일, 섬기는 일요일

양팔을 크게 벌린 할머니는 “이만큼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하고, 방방 뛰며 달려오는 천진난만한 아이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고백한다. 한 목사님은 “그들 덕분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며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저토록 행복해하는 걸까? 모두 요셉공동체 청년들 덕분이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은 매주 주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닌다. 지역교회와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관심과 사랑, 기도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간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이 찾아가는 곳마다 감사의 고백과 간증이 끊이지 않는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의 아주 특별한 주말에 동행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요셉공동체 청년들이 쪽방촌 주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의 주말은 특별하다. 토요일에 예배드리고, 주일에는 사역지로 흠어진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은 매주 주일 지역교회를 찾아가거나 차세대 교사로 섬긴다. ODO(One Day Outreach)를 가기도 한다. 지난 21일(주일)에는 동대문 쪽방촌을 찾았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동대문 쪽방촌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다. 찬양이 흘러나오는 곳을 찾아갔더니 여러 개의 쪽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곳에서 두 손 가득 선물과 복음을 챙겨들고 와 있는 이세연 자매(요셉공동체)와 등대교회 성도들을 만났다.

쪽방촌 주민 김소망(가명)씨가 그들의 방문을 무척이나 반기며 한걸음에 달려 나왔다. 이세연 자매와 등대교회 성도들도 덩달아 신이 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방에도 선물 하나 놓아주세요. 잠시 자리를 비우셨거든요. 제가 잘 전달해드릴게요.”

김소망씨는 이웃의 선물까지 살뜰히 챙겼다. 그리고는 이세연 자매와 등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웃들을 전도했다. 김소망씨 집 앞 길가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그 할머니는 사람들의 방문이 몹시 궁금했던지 살피고 계셨다.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선물과 복음을 전해드렸더니 함박웃음을 지어보이며 양팔을

크게 벌리셨다.

“이만큼 큰 선물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쪽방촌 주민 섬기는 등대교회와 함께

등대교회는 쪽방촌 주민들을 섬기는 작은 교회다. 성도들 대부분이 쪽방촌 주민들이다. 이날 요셉공동체와 함께 전도를 한 등대교회 성도들도 쪽방촌 주민들이었다. 난생처음 노방전도를 하는 등대교회 성도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다.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길게 이어진 쪽방문을 두드리며 복음과 선물을 전했다.

지팡이를 짚고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이바울(가명) 성도 역시 얼마 전까지 쪽방촌 주민이었다.

“쪽방촌에서 16년을 살았어요. 지금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주택에 들어갔고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저처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정말 좋겠어요.”

등대교회 성도들이 난생처음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전도물품은 물론이고 동역자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등대교회 성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요셉공동체 이세연 자매와 배진영 자매가 동역자들을 모았다. 전도용품도 300개나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왔다. 노방전도에 앞서 요셉공동체 청년들과 등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점심식사를 하며 교제했다. 등대교회 담임목사 김양욱 목사가 요셉공동체 청년들에게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아무 말 없이 섬기는 요셉공동체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쪽방촌까지 와서 함께 사역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등대교회 성도들이 요셉공동체와 함께 노방전도를 하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귀한 사역을 함께 해준 요셉공동체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친구이자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는 메신저

요셉공동체 청년들은 사역지를 직접 찾아가 섬기는 ‘ODO(One Day Outreach)’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평화의 집 지역아동센터’에는 매월 두 번씩 방문하고 있다. 평화의 집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돕는 곳이다. 어린이 15명 정도가 매주 주일 평화의 집에서 ‘하랑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이 하랑 어린이 예배 교사로 섬기고 있다. 늘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은 평화의 집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이다. 평화의 집 센터장 박진석 목사는 요셉공동체 청년들의 헌신 덕분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간증했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이 오는 주일이면 아이들의 표정부터가 달라요. 요셉공동체 청년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예배와 나눔을 해준 덕분에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요셉공동체 청년들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예배 참석조차 싫어하던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공동체 청년들은 평화의 집 외에도 차세대 교사가 필요한 지역교회와 기관을 찾아가 섬기고 있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요셉공동체 청년들도 많다. 신아

영 자매(요셉공동체)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유치1부 교사로 섬기고 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을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전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알려주려면 무엇보다 먼저 제 안에 예배에 대한 기쁨이 채워져야겠다고요. 그래서 요셉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기쁨을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더 귀해지고, 아이들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졌어요.”

그들이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이유

신아영 자매의 고백처럼 요셉공동체 청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얻고 있다. 토요일에 예배드리며 주일에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지친 몸과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기도 한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그들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주일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 지역교회, 기관을 찾아가 섬기기 위해서다.

강석진 형제(요셉공동체)는 요셉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토요일마다 대전에서 서울에 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섬기는 힘을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매주 먼 길을 다니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은혜와 힘을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본교회에서 유치부 사역, 청년부 리더십 등을 병행하다보니 개인적인 은혜를 놓칠 때가 많더라고요. 그 부족함을 요셉공동체 토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채우고 있습니다.”

주일에 사역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인 예배 시간을 챙기지 못하는 청년들과 회복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요셉공동체 예배를 추천한다. 받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청년들에게도 요셉공동체가 안성맞춤이다. 요셉공동체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웃들을 더 가까이에서 섬기고 싶은 청년들을 언제든지 환영한다.

요셉공동체 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서빙고 본당
문의: 02-3215-3742

‘21세기의 초대교회 공동체’ 세미나

5월 9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

온누리교회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장로, 권사, 순장 이상)들을 대상으로 아주 뜻 깊은 세미나가 열린다. 5월 9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21세기의 초대교회 공동체’ 세미나가 진행된다. 부제는 ‘세속화된 유럽을 사도행전적 공동체 영성으로 도전하는 미션디모데 이야기’이다. 미션디모데는 1972년 설립된 프랑스 남부 지역에 위치한 사도행전적 공동체 교회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속화된 프랑스 교회 속에서 위그노와 초대교회 영성을 뿌리내리고 있는 미션디모데 공동체를 소개하고, 그들의 철학과 교육 방법 등을 한국 교회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진다. 미션디모데 역사 소개, 목회철학, 컴퓨터 통한 목회 등을 주제로 미션디모데 대표 다니엘 목사와 부대표 제레미 목사, 방선기 목사(직장사역연합 대표)가 강의한다.

5월 11일(토)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도 미션디모데 관련 특강이 열린다.

CCF(크리스천 CEO 포럼)와 OCC공동체 주최로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미션디모데 사역과 ‘Faith Comes By Hearing (FCBH)’ 사역을 소개한다. 미션디모데 대표와 부대표, FCBH 부총재 고건



재슨이 참석한다.

문의: 서빙고 02-3214-3234, 양재 010-4616-922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여호수아처럼 되고 싶어요”

NGO 더멋진세상, 기니비사우 끼냐멜 고아원 개소

NGO 더멋진세상이 서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의 고아들에게 보금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들의 가족이 되었다.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해 12월 기니비사우에서 개소한 ‘끼냐멜 고아원’에는 3세부터 11세까지 어린이 8명이 생활하고 있다. 부모가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서 고아가 된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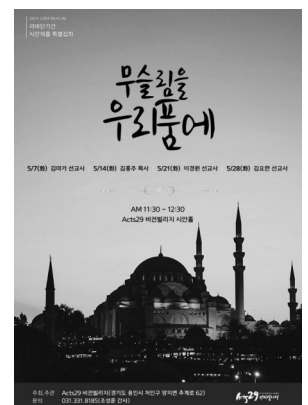
끼냐멜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집과 가족이 생겼다”며 날마다 웃음 짓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앙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김에스터 PM은 “커서 여호수아처럼 되고 싶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지 모른다”고 말했다.

2019 러브무슬림 ‘무슬림을 우리 품에’

5월 7일부터 28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

2019 러브무슬림이 ‘무슬림을 우리 품에’를 주제로 5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Acts29비전빌리지 시안홀에서 막 오른다. 러브무슬림은 라마단 기간 동안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무슬림을 품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자리이다.

5월 7일 김마가 선교사(비전59 기도트랙 인도자), 5월 14일 김홍주 목사(이천선교 본부장), 5월 21일 이경원 선교사(두란노해외선교회), 5월 28일 김요한 선교사(인사이드스 선



교회 대표)가 강의한다.

문의: 031-331-8185

인천 온누리교회 처소 건축부지 기도회

‘인천 온누리교회 처소 건축부지 기도회’가 지난 4월 20일 인천 온누리교회 건축공사 부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4-4)에서 열렸다.

기도회에는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해 인천 온누리교회 건축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인천 온누리교회 처소 건축부지 기도회는 이승배 장로(인천 온누리교회)의 대표기도, 김진규 소장(금강에이스 건설)의 건축 상황 설명, 송동섭 장로(인천 온누리교회)의 건축현금 현안 설명, 서경남 목사(인천 온누리교회 담당)의 말씀, 합심 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두란노바이블아카데미 5월 세미나

‘태아학교’, ‘기독교 고전문학과 영성의 역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5월 세미나 ‘태아학교’와 ‘기독교 고전문학과 영성의 역사’가 개강한다. 태아학교는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 동 두란노서원 1층 블레스홀에서 진행된다. 산전체조, 강보태교, 토라태교, 태아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주제로 정주호(스타트레인 대표), 이영희 대표(카도쉬 비전센터 이스라엘교육연구원), 김경화 목사(광교꿈의교회 영아부), 이혜선 목사(구의교회 영아부)가 강의한다. 회비는 15만 원(부부 동반 20만 원). 5월 13일까지 등록하면 2만원 할인해 준다.

문의: 02-2078-3456
‘기독교 고전문학과 영성의 역사’는 5월 16일부 6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의 <하나님의 사랑>,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에 대해 유재경 목사(대덕교회), 이경희 박사(장신대 초빙교수), 이종태 박사(서울여대 대학교회)가 강의한다. 회비는 15만 원. 5월 9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2만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79

일.하.세.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5월 11일~6월 8일

취시키는 양육 프로그램이다.

일.하.세. 아카데미가 5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SK V1센터 301호(영등포구 41길 11)에서 열린다. 일.하.세. 아카데미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고

성경적 직업관, 성경적 문화관, 성경적 성공관, 성경적 재물관, 일터에서의 대인관계, 일터에서의 신앙성장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10-4122-7255

우리는 ‘좋은 이웃’입니다

사회선교부 이웃사랑팀과 차세대 두드림팀

사회선교본부 이웃사랑팀과 차세대 두드림팀이 용산시립노인복지관 ‘좋은 이웃’으로 위촉됐다. 좋은 이웃은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다. 앞으로 사회선교부 이웃사랑팀과 차세대 두드림

팀은 매월 1회 용산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한다.

박승식 팀장(이웃사랑)은 “가족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찾아가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시즈오카 기 · 도 · 제 · 목

- 5월 6일(월)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 퍼지기를
- 5월 7일(화) 부흥의 불씨가 시즈오카, 동경,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도록
- 5월 8일(수) 시즈오카 교회가 연합하고 부흥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 5월 9일(목) 세미나강사들을 통해 시즈오카에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 5월 10일(금) 가스펠나이트 참여 교회와 교인들이 연합의 기쁨을 누리도록
- 5월 11일(토) 봉사자와 스텝, 출연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 5월 12일(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가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도록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5153	신지향	도곡	1135189	김윤이	남양주C	1135211	임지혜	갈렙	1135241	유재관	동작
1135154	황영미	도곡	1135190	박미옥	부천 소망	1135212	김택균	갈렙	1135254	김귀옥	분당A
1135155	고맹임	인천 소망	1135191	방미화	인천 소망	1135213	윤여준	갈렙	1135264	민명기	인천 소망
1135156	김순정	양재	1135192	김부길	인천 소망	1135214	하병준	허브	1135265	김민영	SNS
1135157	노정연	Point5	1135193	홍현숙	인천 믿음	1135215	이소민	허브	1135266	홍혜림	SNS
1135158	이은숙	동작	1135194	전병훈	인천 소망	1135225	이승수	대전 남누리	1135267	김대훈	SNS
1135160	조문주	대전 남누리	1135195	안초롱	S브릿지	1135226	유정임	한강	1135268	김희진	SNS
1135161	윤태건	천양사역	1135196	김연수	성북	1135227	이유진	허브	1135269	조민애	SNS
1135162	조은진	서초A	1135197	이상원	허브	1135228	박한빈	허브	1135270	송엘리야	SNS
1135163	유은희	수원 남누리	1135198	송은석	허브	1135229	김재훈	인천Web	1135271	김다혜	SNS
1135178	김영철	양지 서누리	1135199	김상진	인천 소망	1135230	강다혜	인천Web	1135272	신동욱	SNS
1135179	이하나	인천 사랑	1135200	구지은	인천 소망	1135231	이명산	인천Web	1135273	장선영	SNS
1135180	김훈희	서초D	1135202	백효찬	여호수아	1135232	윤정하	인천 소망	1135274	황지윤	SNS
1135181	김연희	OEM영여배	1135203	김가은	여호수아	1135233	이소미	인천Web	1135275	임혜진	SNS
1135182	손수현	강남A	1135204	김소현	여호수아	1135234	이규진	W	1135276	조상명	여의도
1135183	노태승	강촌	1135205	김서주	송파A	1135235	임종은	W	1135277	김선혜	천양사역
1135184	강종기	인천 믿음	1135206	최영근	여호수아	1135236	임정규	W	1135278	박춘수	부천 화평
1135185	양조은	서산온누리	1135207	구자균	여호수아	1135237	서주희	대전 남누리	1135279	김민혜	부천 화평
1135186	왕 봉	대전중여배	1135208	장은혜	여호수아	1135238	김미정	양재			
1135187	박명옥	인천 사랑	1135209	선송희	여호수아	1135239	황수형	양재			
1135188	안경자	성북	1135210	이신애	여호수아	1135240	권우준	S브릿지			

한국어 선교학교 4기 수료 간증



/ 배지설 성도(은혜의동산교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10월 어느 날, 햇빛트리니티센터에 갔다가 우연히 한국어 선교학교 4기 참가자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됐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서 가족들까지 나에게 한국어 교육을 공부해보라고 권했는데 매번 거절했다. 외국인 사역을 몇 년 동안 감당하면서 지쳐있었고, 다른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게 될까 두렵기도 했다.

1998년, 18살 어린 나이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됐다.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쫓기듯이 찾게 된 곳이었다.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대학까지 마치게 됐다. 참 아팠던 시간들이었다. 이슬람 국가에서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다. 가난한 유학생이었기에 의지할 곳도 없었다. 방학 때 한국에 잠깐 나올 돈이 없을 만큼 어려웠다.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 외국인사역과 관련된 일을 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셨던 것 같다. 하나님은 신랑을 따라 남양주로 이사를 오게 하시고, 끊임없이 러시아와 구소련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외국인 학생 중에 누군가 아프면 새벽에라도 응급실로 뛰어갔고, 출산을 하면 함께 축하해주고, 밥을 함께 나누었다.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말씀통역도 해줬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움을 주는 것이 밥을 먹여주는 일이라면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것은 직접 밥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번 한국어 선교학교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강사님들의 간증도 많은 은혜가 되었다. 좋은 조장님, 조원들 덕분에 나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과 소망을 깨닫게 됐다.

이번 한국어 선교학교를 마치면서 한국어 2급자격증 공부를 하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다면 상담공부도 해보고 싶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대된다. 늘 하나님께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물으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싶다.

부천 대학청년부 부활절 버스킹



/ 유현진 자매(부천드림플러스)

기도의 은혜

이번 부활절 버스킹은 기도 of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버스킹을 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부활절 버스킹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자리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부활절 버스킹을 준비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할 때 상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들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면서 영혼이 회복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로 부활절 버스킹을 준비하면서 내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다. 그런데 육체적인 아픔이 찾아왔다. 육체의 아픔이 너무 커서 잠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순간 그동안 했던 기도가 생각났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 또한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 기도의 기억이 내게 이겨낼 힘을 주었다.

드디어 버스킹 당일.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맡겼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시련

이 또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악보가 날아갈 정도였다. 드럼을 설치해야 하는데 장비를 빼뜨리고 와서 연주할 수 없게 됐다.

사전에 장소를 허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음공해 민원이 들어와 경찰이 찾아왔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악보 없이 마음으로 가사를 떠올리며 찬양했다. 드럼 대신 카혼이라는 타악기로 호흡을 맞췄다. 볼륨을 줄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을 들었다. 다행히 부활절 버스킹이 순조롭게 마무리 됐다. “어려움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다.

부활절 버스킹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됐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더욱 풍성한 은혜의 부활절을 보낼 수 있었다.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고 싶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케이 선교사(아프리카 C국)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약간의 긴장과 떨림으로 현지인의 집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두 달이 넘었다. 매일 같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처럼 나도 그들의 모습으로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모양으로 일하고, 허영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식사 시간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먹는 양이 다른 것은 이해하는데 배가 고픈 것은 싫고 힘들다. 여기서는 하루 세 끼를 가족들과 함께 먹는다. 아침에는 밀가루죽 또는 팥죽을 세숫대야처럼 생긴 알루미늄대야에 담아 온가족이 웅기쭈기 얹어 먹고, 점심에는 같은 큰 대야에 생선이나 팥죽, 팥죽으로 만든 소스를 밥 위에 얹어 손으로 먹는다. 저녁에는 점심에 요리한 것을 다시 먹는다.

밥 먹는 시간은 한국에서 먹는 시간보다 2시간 30분 정도 늦다. 모스크에서 5번 울리는 아젠 소리가 밥 먹는 시간의 기준이다. 집에서는 매일매일 라디오를 듣는데 이슬람 설교

와 찬트 같은 노래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틀어놓는다. 집주인 할아버지가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카펫을 깔고 모스크를 향하여 하루 다섯 번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 올해 새해 첫날 옆 집에 인사를 했는데 본인들은 새해가 아니며 기독교인들에게만 새해라며 당신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은 다르다고 선을 긋는 일도 있었다.

사실 주인집에 살면서 아줌마와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같이 먹고, 같은 공간에서 살지만 아직까지 가족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언어와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지만 실상은 다른 하늘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주님의 빛이 주인집 가족들을 비추주시기를 기도한다. 내가 주인집에서 아프지 않고, 언어를 잘 배우고 잘 사용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창조신앙스쿨 수료 간증



/ 이나영 성도(여호수아공동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

작년 봄 처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창조과학이라는 용어조차 몰랐던 나는 교회 친구를 통해서 창조과학이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과에서 지구과학2를 공부했고,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창조신앙스쿨의 모든 강의를 다 좋았지만 특히 노아의 방주 샘플을 만드는 실험이 인상 깊었다. 노아의 홍수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다.

또 <창조, 맞습니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 주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도 내 마음을 벅차게 했다.

나는 꽃을 참 좋아한다. 과학적인 지식으로 보면 꽃은 단지 식물의 생식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꽃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축하와 위로 등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

다. 계절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계절마다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상에 젖게 된다. 계절 또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이 가슴 깊이 와 닿는다.

유신진화론이든, 일반적인 진화론이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의 인간은 우연히 발생된 생명체에 불과하다. 그 어떤 의미나 영적인 정체성을 내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극히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것에 당위성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인간은 분명 영적인 존재이며, 각자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가진 귀한 존재다. 이 사실을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며 알게 되었다.

새신자로 교회에 등록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긴 했지만 사실 이 세상의 시작과 사후세계에 관해 궁금증이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어려움으로 세례 받는 것을 주저하기도 했다. 하지만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점차 확신이 들었던 것 같다.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힘써주신 창조신앙스쿨 스테프들과 강사님들께 정말 감사하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여호사밧의 기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사밧은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암몬과 모압 군사들은 세일산에서 온 군사들을 대항해 일어나 세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세일 군사들을 다 죽이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대하 20:21~23).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를 앞세워서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욕이 고난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욥 1:21).

성경에 예수님께서 찬송을 부르셨다는 구절이 단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기도하는 과정에서 찬송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후에 찬송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벽 앞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해 보십시오. 대적이 무너질 것입니다. 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과 경배의 능력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은 능력입니다.

여호사밧의 믿음과 기도

여호사밧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기뻐하셨고 응답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사밧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와의 성전 새 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5~6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주관하시는 능력과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사밧이 찾았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 찾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믿고 구한 하나님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들의 왕인 다윗과 함께 하셨으며,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동행하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역사적으로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확증되신 분이십니다.

셋째, 여호사밧은 역사 속에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유다를 침공해 온 연합군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금홍을 베푸셔서 잔존하

게 된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배은 망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들이 그 은혜에 대하여 악으로 갚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공의로 판단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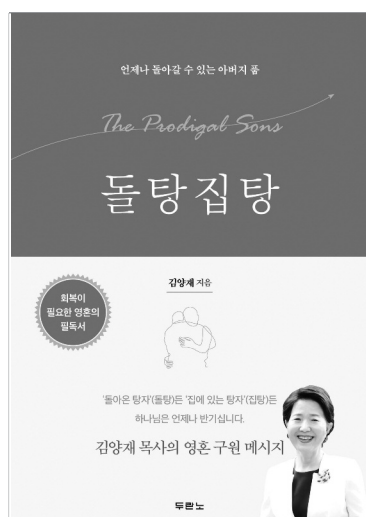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온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계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며 겸손히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기도가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위기를 허락하실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돌이키시고, 도우시며,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위기 이전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절대로 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맞이할 때 작은 믿음의 불씨가 살아나게 됩니다. 평상시 우리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위기의 패배는 위기 이전의 기도의 실패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하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믿음의 불씨, 기도의 불씨를 살려서 위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에 정치, 경제, 외교, 북핵 위협 등 여러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누군가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겸손히 회개하며, 우리 자신부터 금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이 나라 민족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두 명의 탕자이야기



〈돌탕집탕〉

김양재 저 | 두란노 | 10,000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 좋은 책이 한 권 나왔다. 김양재 목사가 펴낸 〈돌탕집탕〉이다.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

김 목사는 성경에 두 명의 탕자가 나온다고 주장한다. ‘돌아온 탕자’ (돌탕)와 ‘집에 있는 탕자’ (집탕)이다. 집을 떠났다 돌아온 탕자뿐만 아니라 돌아온 동생을 반기지 않았던 형도 탕자로 비유하고 있다.

김 목사는 돌탕과 집탕이 근본적으로 같다고 말한다. 돌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이다. 모든 것을 잃고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이다. 집탕은 종처럼 아버지를 열심히 섬겨야만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탕자의 형이다. 매주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다. 집탕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의 일부분이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탕이든 집탕이든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돌탕집탕〉을 읽는 것만으로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폭풍 속의 가정〉

러셀 무어 저 | 두란노 | 20,000원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동시에 어려움과 힘든 순간을 경험하는 공간이기도 한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가정이 실직을 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사단은 이러한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러셀 무어는 〈폭풍 속의 가정〉에서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복음을 이해하는 첫 걸음은 남녀의 차이, 결혼, 성, 이혼, 자녀, 부모 등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성경말씀을 토대로 가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 방법으로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붙들지 않기’, ‘노년의 부모를 잘 섬기기’,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 등을 제안한다.

〈폭풍 속의 가정〉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지혜를 제공해 줄 것이다.

14 온누리신문

게시판

2019년 5월 5일(주일) | 제1244호

서빙고

O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증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9:30 301호/네팔어 주일 10:3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증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증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증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부림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3월 21일(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CMNR파라팀 네팔 아웃리치 모집
일시: 7/12(금)~7/19(금)
분야: 산부인과, 치과 의사, 약사, 봉사자
비용: 160만원 예정(환율에 따라 변동)
문의: 박귀홍 팀장 010-9990-2875

55기 인투 부모교실
일시: 9월 6일~8일(3일간) 10:00~16:30
대상: 차세대 자녀를 둔 부모, 자신의 정체성 회복, 관심 있는 사역자
회비: 12만원(5월31일까지 등록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문의: 한순례 전도사(010-9291-8384)
*www.into7.net참고

제123기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일시: 6월 8일~30일(매주 토요일, 주일 1박2일 총 4주)
장소: Acts 29 양지비전빌리지
대상: 성경적 가정을 소망하는 부부
회비: 300,000원(자녀 동반 시 1인 당 50,000원 별도)
문의: 김상범 팀장(010-5471-0854)

온누리임양가족(제이홀) 임양세미나
주제: 그리스도인의 임양이란?
일시: 5월 19일(주일)
시간: 오후 5시~7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2층 꿈아이홀
대상: 임양을 준비 또는 관심 있으신 분
문의: 김병찬 총무(010-3836-2717)

양재

O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토 오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총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정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살롱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3월 21일(목) 오전 10:30
장소: 분관 B3층 JDS홀

양재 목회지원실 계약직 간사 모집
근무: 6월~2020년 1월 예정
내용: 교회 홈페이지 알람판 참고
문의: 정호영(02-570-7447)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기독교상담학, 신약학
접수: 4월 29일~5월 8일 17:00까지
문의: 02-570-7381
*www.ttgua.ac.kr 참조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O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9:30 301호/네팔어 주일 10:3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증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증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증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부림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3월 21일(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CMNR파라팀 네팔 아웃리치 모집
일시: 7/12(금)~7/19(금)
분야: 산부인과, 치과 의사, 약사, 봉사자
비용: 160만원 예정(환율에 따라 변동)
문의: 박귀홍 팀장 010-9990-2875

55기 인투 부모교실
일시: 9월 6일~8일(3일간) 10:00~16:30
대상: 차세대 자녀를 둔 부모, 자신의 정체성 회복, 관심 있는 사역자
회비: 12만원(5월31일까지 등록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문의: 한순례 전도사(010-9291-8384)
*www.into7.net참고

제123기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일시: 6월 8일~30일(매주 토요일, 주일 1박2일 총 4주)
장소: Acts 29 양지비전빌리지
대상: 성경적 가정을 소망하는 부부
회비: 300,000원(자녀 동반 시 1인 당 50,000원 별도)
문의: 김상범 팀장(010-5471-0854)

온누리임양가족(제이홀) 임양세미나
주제: 그리스도인의 임양이란?
일시: 5월 19일(주일)
시간: 오후 5시~7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2층 꿈아이홀
대상: 임양을 준비 또는 관심 있으신 분
문의: 김병찬 총무(010-3836-2717)

수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시,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시,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민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민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제1244호 | 2019년 5월 5일(주일)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8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3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경기도 양주시 평택시 262-3층

• 평택
손신국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3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지형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동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엘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창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m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신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6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 오를랜드
유원록 목사 64-21-0810-3132
7 Tm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서현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t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타마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l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
AGAWA-KU SHIMAI-CHO61 EHW DAIA-
MOND 2F

• 고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충북

• 이부다비
김태만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S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둥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 5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shi Minhangqu Caobailu 1243hao
yongweishangwudasha 3lou 388shi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홍정표 Bob Koo Joseph Chu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은수 김성민 김성연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지현
김진원 김창식 김현경 구혜선
마커스 문하나 박미은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창진 박현욱
배윤호 배도훈 서재욱 설상정
손은수 송민선 신기원 심형진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기훈 이재경
이영민 이현우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정재숙 지지영
정하동 정 결 정성진 이지영 조 단
전희교 정진영 이자영 조 단
최정미 최지연 최진숙 하보라
최정훈 최바아시 메구 기지마
에미코 헨스오 Christine Daniel
Kim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Rachel Back
Sam Lee Tommie Njobvu

■장로

고성환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태동 박호택 백 학 손진석
손정래 신종호 이광철 이태환
이문호 이상덕 이상현 이준상
여훈필 장민원 장우진 조구배
조성민 허규희 홍관희 홍규석

■명예장로

■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

■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신기섭
김상수 이해영 손신국 서경남
노지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일하 강지영 권영환
권용갑 권진만 김혜영 김정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근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상수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윤배 김요성 김요성
김용민 김유식 김진아 김재서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중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태태
럼문홍 문영재 박시영 박성은A
박성은B 박팔철 박성진 박세윤
박철웅 박형준 배행상 박성빛
백인규 변대섭 석승호 손정훈
송성근 송영동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스티브 안광국 양성민
양재철 여성민 오 민 오우규
우윤상 원유경 황해배 유수영
유영순 유영원 윤경록 윤길중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기탁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시진
이윤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준현 이준인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경현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하호 정현진 정영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영진 지대근 최성민 최석선
최승구 최용준 최희중 한화수

●전도사(전임)
김기락 김재승 문장원 안사무엘
이우람 최재승 최성규 한은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배만 박이호

●합동목사
박상학 김도일 류모세 방선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김기범 김바울 김세현 김종영
김창성 김혜영 배도훈 박씨마
마주누님 민현식 배래리 박씨마
박천종 서수민 신정빈 성우애
안희진 이진아 유승덕 유진아
윤치연 원서연 최일관

●전도사(파트)
강성욱 고주민 권은영 권영현
김경민 김두일 김세환
김연희 김연수 김은하
김승겸 김승민 김요성
김은혜 김유민 김지현
김정호 김지아 김주영 김종근
김정성 김태환 김태국 김한국
김형중 김현태 박근명 박미애
김영준 민혜준 박영준 박성빛
박이호 박명지 박세미 박윤진
배경진 배수호 송진애
서영철 배수호 송진애 신대중
송우형 송지은 신현아 신대중
양진범 오주현 오형석 유승민
양정선 신현미 여지휘 연광주
윤정선 윤준석 윤수신 윤솔기
윤지은 윤지은 윤지은 윤지은
윤지은 윤지은 윤지은 윤지은
이민아 이비오 이상진 이시진
이윤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준현 이준인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경현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하호 정현진 정영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영진 지대근 최성민 최석선
최승구 최용준 최희중 한화수

●시무장로

●시무장로

●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

●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

●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

●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

●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

●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

●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

●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

●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

●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

●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

●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

●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

●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

●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

●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

●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

●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

●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이은은 엄지영 이광민 이영우
유아영 유기열 이광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홍현철
최정화 최정혜 홍현철●담임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만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원록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김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 이성진●명예장로
마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합동장로
강관익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김창근
정석환 최종호 윤한도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한식 서인택
최태원 김중수●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용재 김진영
김재환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영숙 박우람 송해경

CGNTV

CGNTV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 보내세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PK워십 장광우 목사 가정의 특별 워십과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코너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월 11일 토요일 낮 12시 방송
MC 신동식 목사, 개그우먼 손별이



<와일드 형제의 정글 스토리>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생활하는 선교사 자녀 와일드 형제의 모험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전합니다.

시즌1 와일드 형제의 정글 스토리 (1~3편)
시즌2 컬처 쇼크 (4~5편)
시즌3 와일드 항해사 (6~8편)

5월 11일 ~ 6월 1일 토요일 오후 6시 50분
(2편씩 순차적으로 방송)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복화술로 복음을 전하는 안재우 복화술사의 간증을 통해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위로를 선사합니다.

5월 5일 주일 오후 6시 20분 방송
출연 안재우 소장 (복화술연구소)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

부모와 자녀가 믿음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 감정 코칭에 대해 배워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50분 방송 (총 12강)
강사 박재연 대표 (리플러스),
최은영 교수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유튜브 채널, YouTube 에서 'CGNTV KIDS' 를 검색하세요.